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4호 [루계 제26128호] 주제 107 (2018)년 9월 11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위하여 환영공연과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
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특별대표인 중
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화인민
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퉁전서
동지가 인솔하는 중화인민
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위하여 9월 10일 환영공연
과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
였다.

공화국창건 70돐을 축하
하기 위하여 뜨거운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 나라를 방문
한 중국의 귀빈들을 환영하는 예술인
간부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리진군동지를 비롯한 중
국대사관 성원들이 공연에 초대되였다.
뜻깊은 공연이 진행되는 만수대예술
극장은 조종 두 나라 국기와 조종천
성을 상징한 구호들과 장식물들로 아름
답게 단장되어있었으며 중국인민의
친선의 사절들에 대한 환영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국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
평동지께서 과전하신 중국의
귀빈들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환영과 친선의 정을 담아
특별히 준비한 공연무대에는
남성독창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가야금을 위
한 관현악 《아리랑》, 여성독
창 《당을 노래하노라》, 여성
중창과 남성합창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와 중국노래들
인 여성독창과 남성합창
《장강의 노래》, 여성중창
《붉은기 펄펄》, 여성 4중창
《안녕하시라》, 여성중창 《나
의 중화민족을 사랑하네》,
여성독창과 방창 《새 세계
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려퍼지며 종국 《조종천
선은 영원하리라》가 울려 퍼
지는 속에 공연은 최정점을
이루었다.

와 리철주동지께서 극장홀에서 중화인민
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을 맞이
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고 그들과
기념촬영을 하신 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물전서동지를 비롯한 대표단성원들과
함께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우렁찬 환호를 울리면서
조종천선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공화국창건
70돐을 맞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
였다.
물전서동지와 대표단의 주요성원들
에게 여성예술인들이 향기그윽한 꽃다
발을 드리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조선로동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승리의
길로 힘차게 노드쳐나아가는 우리 공화국
의 존엄과 위상을 격조높이 노래하였
으며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
의 특별한 관심속에 년대와 세기들이
어 더욱 풍만하게 개화발전하고있는
조종천선의 불멸성과 공고성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위하여 환영공연과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공연은 시종 조종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의 정이 뜨겁게 끓어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환호성이 머저울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이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불전서동지와 함께 무대에 오르시여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예술인들을 축하하시였다.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날 저녁 습근평총서기동지의 특별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연회는 시종 우애의 정 넘치는 화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대표인 불전서동지와 중화인민공화국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및 정부대표단을 위하여 성대한 불전서동지를 비롯한 대표단성원들 본사정치보도반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떨치며 청년들 앞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 진행



【평양 9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혁명의 힘으로써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 형태로 영웅영년신화를 금시높이 아로새겨 온 미려운 청년전위들이 공화국창건 70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9월 10일 저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떨치며 청년들 앞으로!》가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해불야회장은 9월의 명절을 경축하는 기쁨과 환희에 넘친 청년학생들로 성황을 이루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과 도당위원장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주석단에 나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

하고있는 엘바도르 안토니오 발베스 페라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제1부위원장 겸 내각 제1부수상, 힐랄 알 힐랄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부비서 등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정부 대표단 단장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또한 제일본조선인총합단, 재공조선인 총련합회총합단, 국제고려인총일련합회 대표단 단장이 자리잡았다.

초대석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대표들, 당, 무력, 정권기반, 성, 중앙기관 인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공로자들이 자리잡고있었다.

해외동포총합단, 대표단 성원들, 해외 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와 여러 나라 대표단성원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단 성원들, 외국 손님들이 해불야회에 초대되었다.

해불야회시작이 선언되자 《빛나는 조국》의 노래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야회장은 공화국창건일을 경축하는 《9.9.》, 《경축 70》이라는 글자들이 새겨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품은 기록에 정중히 모신 무개자가 활황

라오르는 해불봉을 든 청년전위들의 용위를 맡으며 혁사의 광장에 들어섰다.

혁명명도의 전기간 독창적인 청년전시, 청년사령의 정치를 펼치시어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문제를 전면무결하게 해결하시고 이 땅위에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청년강국을 일떠세워주시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청년학생들이 해불로 《김일성영웅》, 《김정일조선》이라는 대형글밭을 새기고 태양도형을 형성하였다.

혁명송가 《김정은장군전가》의 선율이 장중하게 울리는 속에 청년학생들은 시대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내세워주시어 삶과 위훈의 활무대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총정의 마음을 해불에 담아 당마코, 공화국기도형과 《김정은시대》, 《최고명도자》, 《승리의 기치》 등의 글밭을 펼쳐놓았다.

열화같은 흥모심을 안고 청년학생들이 미치는 태양성송의 함성은 광장을 진감하고 관람자들속에서는 열광적인 박수갈채가 리저올랐다.

당을 따라 부강조국건설의 진군길에

걸어온 청년대군의 역선 기상을 시위하며 《백전백승》의 글밭이 빛나는 봄의 대오가 용용히 흐르는 광장에 《항도자》 등의 글밭과 조선로동당기, 붉은기가 새겨졌다.

해불대오들이 적의하고 제인 대형번화로 《영웅조선》, 《일심단결》을 비롯한 글밭을 새기며 행진해가고 주체의 기치높이 자력부강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위상을 보여 주는 해불글밭들과 주체사상탑봉되대, 당창건기념탑도형이 편이어 자태를 드러냈다.

당의 부름에 언제나 떠나는 심장으로 화답하며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청년전위들의 의지를 담은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달려가자 미래로》, 《우리의 신념》의 노래들이 야회장에 메아리쳤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중산층적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갈 일렬성원들의 기개가 배마치는 《경제건설》, 《가수화》, 《총력집중》, 《사력강성》, 《과학기술》을 비롯한 글밭들과 사회주의 내조국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 반대!》 등의 글밭들이 해불로

라오르며 불야성을 이루었다.

《김정일애국주의》, 《결사옹위》, 《청년강국》, 《혁명정신》, 《후비대》, 《혁명대》, 《익숙무대》 등의 해불글밭들과 군중무용원도형들은 태양민을 따르는 신념의 열이 되고 백두의 태양을 받드는 혁명의 기쁨이 될 청년학생들의 불같은 열의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를 송정다해 받들어갈 청년들의 혁명적신념이 만장악원 해불봉을 높이 추켜든 혁명학원대원을 선두로 《최후승리》라는 글밭을 새긴 대오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노래선율에 법집음을 맞추어 보부당당히 행진해나갔다.

야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혁명의 불을기울 켈렐 뒤날리며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내달려갈 영웅청년대군의 강의를 한 개를 안고 당마코를 중심으로 한 대형원도형을 펼치었다.

군중들은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70성상과 더불어 청년들을 시대의 영웅, 창조적 거인,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들로

역세게 키운 우리 당의 청년중시의 역사를 돌이켜보게 하는 해불대오들에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어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 온 나라 인민들과 청년들이 드리는 다함없는 축원의 마음이 《원수님께 영광을!》이라는 대형해불 글밭으로 승화되어 거세차게 라오르고 경축의 속마가 리저올라 해불야회마감을 뜻깊게 장식하였다.

청춘의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 프락에 이어놓고 당을 따라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명세로 가슴 불태우며 야회참가자들이 떠치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소리가 야회장에 우렁차게 울려퍼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는 당의 명도를 총정리로 받들고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청년전위들의 역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적도기네평화국 대통령이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오비앙 느게 마 브라소코 적도기네평화국 대통령이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내어 온 선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용동지에게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고있는 적도기네민주당대표단 단장인 헤르니모 오사 오사 에코 로 적도기네민주당 총비서가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몽골 민주당 위원장이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선물을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에게 우리 나라 몽골민주당 위원장이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선물들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각각 전달되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월남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겸 전 이팔리아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서기장이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월남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겸 전 이팔리아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서기장이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선물은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대성동지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쾨 라임 먼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월남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겸 전 이팔리아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서기장이 각각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제 11차 평양국제 과학기술도서전람회 참가자들이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제 11차 평양국제 과학기술도서전람회에 참가한 중국국가신문출판사대표단과 러시아과학원 원동분원대표단이 선물을 드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선물들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각각 전달되었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중국국제우호연락회에서 보내어온 선물이 전달되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에스빠냐 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내어 온 선물은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고있는 에스빠냐인민공산당대표단 단장인 카르멜로 후아레스 총비서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외국 손님들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0일 라오스인민혁명당대표단, 적도기네민주당대표단, 베네수엘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캄보디아 와프사와주제사상사단, 캄보디아 와프사와주제사상사단원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비범한 사상과 민족애와 특출한 명도로 인류사주위위수행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수호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또한 이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조선중앙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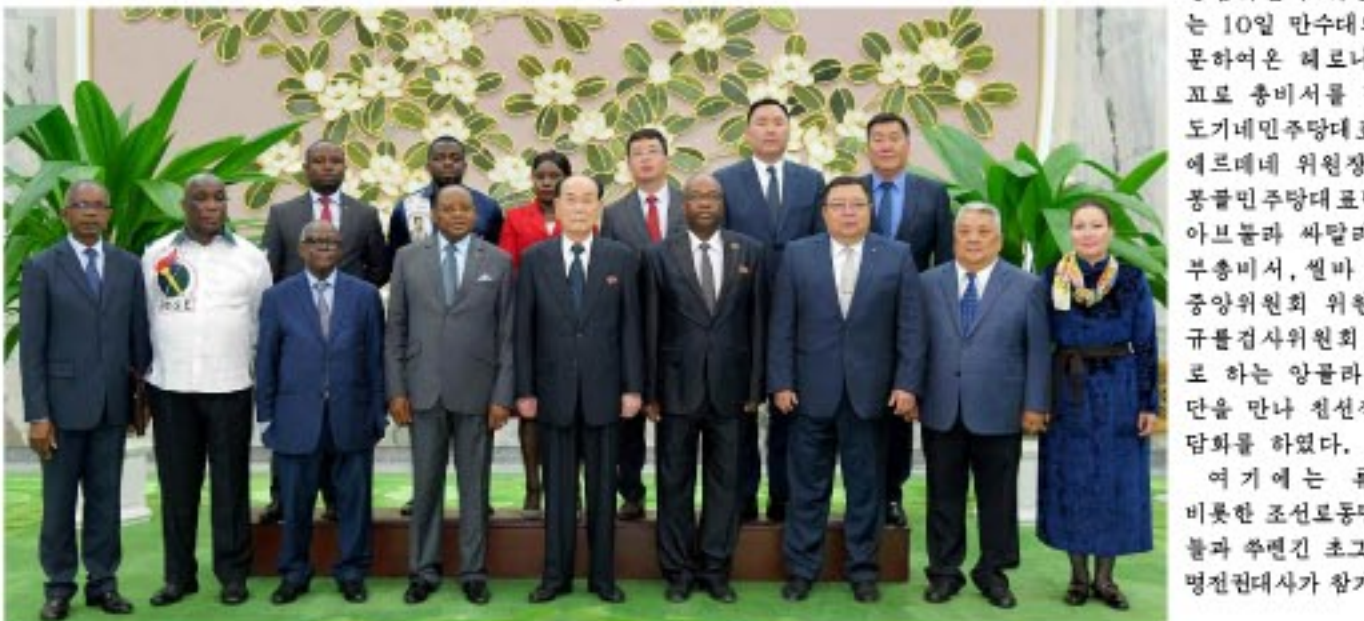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에 모시었다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에 모시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화 《위대한 조국》이 허천군 민력협동농장, 북천군 청해농장에 정공이 모셔졌다. 함흥시 사포구역에 모신 모자이크벽화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여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주체조선의 창랑한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형상되어 있다. 단천시 직할남새전물협동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현지도의 길을 취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었다. 영광혁명전적지에 모신 모자이크벽화는 조국해방위업에 팔아올리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고있다. 주체26(1937)년 8월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로선을 받들고 성지들에 나오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동해안지구 정치공작원들과 지하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지도하시면서 활동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모자이크벽화를 함경남도안의 여러 단위에 모신것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일망겨잡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림없는 신심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이 해당 단위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제 11차 평양국제 과학기술도서전람회 참가자들과 중국산서청년대표단, 해외연교자가족이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제 11차 평양국제 과학기술도서전람회의 참가자들이 10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나라들사이의 친선 관계발전과 세계 자주위업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중국산서청년대표단과 세경항일혁명투쟁연교자 시순옥가족일행이 10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탁월한 사상과 명도로 시대와 역사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여 만민의 다함없는 흥분을 일으키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꽃바구니들의 땀겨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등의 글씨가 모셔져있었다. 또한 이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동지가 여러 나라 당대표단, 대표들을 만났다



김영남동지가 따쥐끼스판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따쥐끼스판공화국 대통령 에 모달리 라흐몬 각하 나는 따쥐끼스판공화국 국경일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당신의 명도덕에 귀국정부와 인민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대외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복리와 번영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7(2018)년 9월 9일 평양

김영남동지가 캄보디아왕국 국왕특사일행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는 10일 만수대역사장에서 의예방문하여온 캄보디아왕국 국왕특사인 호르 남봉 정부 부수상과 일행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외무성 부상 리홍복동지와 현 문부주조 캄보디아왕국 특명전권대사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우의탑을 찾았다

부부장 류명선동지, 외무성 부상 리홍복동지와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동행하였다. 우의탑에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땀겨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들은 영생할것이다》라는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를 들고 세계주의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전선에 참전하여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한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불전사동지는 감상록에 《우의탑은 중조천선의 역사적증거자이며 영원한 상징이다. 중조인민은 역사공로를 세우고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날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은 평양교원대학을 참관하였다.



모리따니이슬람공화국 대통령 평양출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모리따니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모하메드 울드 아브덴자지각하가 10일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와 외무성 리홍복동지, 대외경제성 부상 리명산동지, 법 모하메드 엘 하비브 주조 모리따니혁명전권대사가 대통령과 일행을 전송하였다.

로씨야연방평의회 의장 평양출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공식방문하였던 알렉세나 이와노브나 마드비엔코 로씨야연방평의회 의장이 10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인 사회과학원 원장 리혜정동지, 외무성 부상 리홍복동지, 관계일군들, 수도시민들과 일행원들이 모리따니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모하메드 울드 아브덴자지각하, 대외경제성 부상 리명산동지, 법 모하메드 엘 하비브 주조 모리따니혁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의장과 일행을 환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경축

국립교향악단 음악회 《사회주의교향곡》 진행

【평양 9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경축 국립교향악단음악회 《사회주의교향곡》이 10일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무력,

민 음악회무대에는 제1악장 《인민공화국 찬가》, 제2악장 《내 조국 한없이 푸아라》, 제3악장 《위대한 수호자》, 제4악장 《홍하는 내 조국》, 제5악장 《사회주의진진가》, 제6악장 《세찬한 음악》, 제7악장 《당이며 그대 있기에》 등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 인민대중중심의 나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선군의 기치높이 강국

건설위업실현에 헌성을 장고며 바치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교향악의 심원한 선율에 담아 격조높이 성창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한 긍지와 자랑, 근로하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된 크나큰 감격과 기쁨, 눈부신 기적과 혁신으로 새인생을 경탄시킨 천리마시대, 로동당시대의 벅찬 승일이 관원악의 웅만한 울림속에 벽박했다. 철세위인들의 손길아래 강대한 사회

주의국가로 솟구쳐오른 우리 조국의 거창한 전변과 위대한 승리의 70년 역사를 되새겨보게 하는 목동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 선율을 감내하고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빛내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향모와 신뢰의 정을 독후한 3관현악으로 훌륭히 형성하였다. 창작도 편성도 형상도 우리 식으로

하여 더욱 감흥이 큰 사회주의교향악의 높은 예술적경지와 위력을 시위하며 세계명목들도 추색있게 연주한 음악회는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총곡 《홍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로 막을 내린 음악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행도따라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이룩해가는 주체조선의 약동하는 기상을 잘 보여주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성동지와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사이의 회담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태성동지와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웰남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사이의 회담이 10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는 조선로동당과 웰남공산당의 활동정형이 통보되고 두 당사이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의견들이 교환되었다.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에 있어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와 적도기네 민주당 총비서사이의 회담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용동지와 적도기네 민주당 총비서사이의 회담이 10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양당은 두 당사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상대방에서 적도기네민주당 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경축 해외동포들을 위한 연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경축 해외동포들을 위한 연회가 1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연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경축 제 70주년 기념음악회 축하공연,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대표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축하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상이신 김정은동지에 대한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안녕을 삼가 축원하며,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번영을 위하여, 주체적해방의 투쟁을 위하여 굳게 결연할 것을 다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공화국 창건 70돌 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사회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국제적실정을 반영한 자주주권선언을 제시하시고 조선식사회주의를 건설하시였다. 그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하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제의 힘으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평화와 인권을 담보할데 대해 밝히시였다. 그의 선군혁명명도에 의하여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의 장군으로, 조선은 무적막강한 군력을 갖춘 사회주의부호로 전변되었다. 오늘 자주의 강국인 조선의 최고수위에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명도밑에 조선인민은 국방혁명과 경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84호 주제107(2018)년 8월 30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한다.

3중3대혁명붉은기 작업소
김일성종합대학 혁명사적관 2, 8기동성년단광 공무직장 조선 4, 26인화외회활영소 제1작업단
평원평동농장
2중3대혁명붉은기 두단오리농장 비육1직장 평천구역도로시설관리소 새마을작업단
평양시도대상업관리처 직물도매소
용성구역상업관리처 동대원구역식료품수매상점 한천수산업소
덕천리광기계공장 소재직장 청남구역신농장 축산작업단 대룡고려마공장 천마방산 조양정 안악군제1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용광로직장
은파군평정사업소 고신철현명사적관 오가산자연보호구역관리소 새포군산림경영소 모계양묘작업단
이천군 울속산농장 농산제4작업단
통천군인민병원 청진시 청암구역 편해협동농장 제5작업단
백암군산림경영소 통제조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85호 주제107(2018)년 8월 30일 모범적인 학교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한다.

2중영예의 붉은기 동대원구역 대신초급중학교
형제산구역 약수초등학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85호 주제107(2018)년 8월 30일 모범적인 학교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한다.

영예의 붉은기 서성구역 견계초급중학교
순안구역 석박초급중학교
복상군 백운초급중학교
사리원시 상대초급중학교

쿠바공화국 당 및 국가대표단 여러 곳 참관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제1부위원장 겸 내각제1부수장인 알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동지가 인솔하는 쿠바공화국 당 및 국가대표단이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참관하였다. 위무성 부상 최희철동지가 동행하였다. 손님들은 선출위인들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나라의 믿음직한 비단실생상기지로 전변된 공장의 자랑찬 발전력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혁명사적교양실, 견방직공장, 로동자합숙 등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알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동지는 감사속에 글을 남겼다. 쿠바공화국 당 및 국가대표단은 또한 류경인과총합병원, 자연박물관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쿠바공화국 당 및 국가대표단이 우리나라 방문과 관련하여 연회 마련

쿠바공화국 당 및 국가대표단이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하여 10일 종합봉사선 《무지개》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용동지, 위무성 부상 최희철동지, 관계부서 일꾼들이 초대되었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며, 존경하는 라울 카스트로 부총통과 미겔 마리오 디아스 카넬 베르무데스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감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태양민족의 존엄과 기상 9월의 하늘가에 차넘친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 명도 아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공화국장군님 일흔팔을 맞이하며 또 하나의 귀중한 문화적재보가 마련되어 온 나라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셨다.

위대하고 존엄높은 공화국의 공민인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 주는 도서 《조선의 국가상징》, 《조선의 국호와 국기, 국장, 국화》와 국수 그리고 국조와 국조, 국조를 비롯한 우리 조국의 국가상징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도서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사 교수 박사 박재은, 교수 박사 평양성동부를 비롯한 수십명의 관공들은 학자, 일꾼들이 집필 한 권정찬 이 도서는 10개의 장과 부록으로 되어있다.

도서는 공화국의 국가상징들에 대한 역사적 배경, 그리고 국호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강령있게 전하고 있다. 우리 국가의 계급적성격과 혁명의 근본목적, 당면업무를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정해주신 국호에는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이 역사적 자주적인 주제, 나라의 주인으로 된 진정한 인민의 나라라는 의미와 함께 국가를 광범한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국가로 건설하여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경건히 옹호하고 수호하는것을 자신의 필생의 사명으로 간주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국호와 국기, 국장을 애써 사랑하셨다.

우리의 국가상징에 어떤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자유의 감피에는 국호와 국기, 국장을 대시형상하도록 하시고 세칙화하여 집필성민족의 만민재부로 깊이 빛내어주시는 불멸의 열적도 빛나

는 넘친이 그대로 정제성되어있는 그런 전인민적인 국가상징은 없다.

《제1장 조선의 국호》, 《제2장 조선의 국장》, 《제3장 조선의 국기》, 《제4장 조선의 국화》와 《제5장 조선의 국조》에서는 애 국가상징들에 대한 일반인식과 함께 그 제정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우리의 국가상징들을 고수하고 빛내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과 정제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강령있게 전하고 있다.

승리와 영광의 역사만을 아로 새겨온 존엄높은 우리 조국의 국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불려난 모아도 대양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 하늘에 닿는 우리의 국호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 투철한 자주정신과 인민중심의 사상이 구현되어있으며 우리 국가의 계급적성격과 혁명의 근본목적, 당면업무를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정해주신 국호에는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이 역사적 자주적인 주제, 나라의 주인으로 된 진정한 인민의 나라라는 의미와 함께 국가를 광범한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국가로 건설하여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경건히 옹호하고 수호하는것을 자신의 필생의 사명으로 간주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국호와 국기, 국장을 애써 사랑하셨다.

우리의 국가상징에 어떤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자유의 감피에는 국호와 국기, 국장을 대시형상하도록 하시고 세칙화하여 집필성민족의 만민재부로 깊이 빛내어주시는 불멸의 열적도 빛나

《애국가》를 부르며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애국가 그대 그대 울려 퍼지는 내 조국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가슴속까지 안겨오고 그런 때면 《나는 조선사람이다》 라는 마음속적경이 솟구쳐 눈물을 흘리게 된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나라의 통일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굳은 결의를 더해 주는 《애국가》를 부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신 애국애민을 강령있게 새겨주신 공화국을 삶의 품으로 간직하고 정제하는 원수님의 명도이해 더욱 빛날까 애국의 선수를 굳게 가다듬는다.

오랜 역사적투쟁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우리 조국의 존엄높은 주제조선의 국가상징으로 자랑되게 하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정해주신 국호에는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이 역사적 자주적인 주제, 나라의 주인으로 된 진정한 인민의 나라라는 의미와 함께 국가를 광범한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국가로 건설하여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경건히 옹호하고 수호하는것을 자신의 필생의 사명으로 간주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국호와 국기, 국장을 애써 사랑하셨다.

우리의 국가상징에 어떤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자유의 감피에는 국호와 국기, 국장을 대시형상하도록 하시고 세칙화하여 집필성민족의 만민재부로 깊이 빛내어주시는 불멸의 열적도 빛나

와 자부심을 가슴속깊이 안겨 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조국전진투쟁을 인민들속에 애국주의를 깊이 심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참예를 우리 나라의 국조로 정하도록 해주셨다.

지금도 참예는 흥행스러운 새이며 조선사람의 기질을 담은 새라고 말씀하시던 정제하는 원수님의 감정이 귀에 울려오는것만 같다.

날로 아름다워지는 위대한 내 조국에 꽃피어 나가는 조선의 국화 목련꽃은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함박꽃 나무, 목련화(흰꽃과 같은 것이 나무에 핀다는 뜻)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

김은모부유적을 비롯한 여러 유적들을 가진 우리 조국의 존엄높은 주제조선의 국가상징으로 자랑되게 하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정해주신 국호에는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이 역사적 자주적인 주제, 나라의 주인으로 된 진정한 인민의 나라라는 의미와 함께 국가를 광범한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국가로 건설하여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경건히 옹호하고 수호하는것을 자신의 필생의 사명으로 간주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국호와 국기, 국장을 애써 사랑하셨다.

우리의 국가상징에 어떤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자유의 감피에는 국호와 국기, 국장을 대시형상하도록 하시고 세칙화하여 집필성민족의 만민재부로 깊이 빛내어주시는 불멸의 열적도 빛나

전 풍산개, 국수 평양소주에 대한 사료들도 매우 풍부하게 소개되어있다.

세계적으로 해당 나라의 민족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나무인 국수는 일반적으로 나무의 고유한 특성과 관상치나 역사적 전통, 풍조적관습 등에 따라 특정한 나무를 신성화하여 정하는 것, 경제적가치에 따라 해당 나라에서 특별히 많이 재배하거나 크게 혜택을 주는 나무를 정하는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국수 소나무에는 민족의 넉과 승정, 인민의 정서와 감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있다.

예로부터 길게 다르고 의미심이 강했던 조선민족은 나무가운데서 사시정령 특성을 잃지 않는 소나무를 매우 사랑하였다.

죽을지언정 변치 않는 굳은 절개와 억센 기상을 소나무에 담은 우리 인민의 남다른 민족적정서는 만경대일가분들의 고고한 애국의 역사와 더불어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와 더불어 이어져서 불려주시고 귀한 혁명유산을 심장속에 새겨안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신은 신을하는 제의 가슴속에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조선의 정신도 살아있다는 민족적정서의 불꽃을 지켜주시고 일제의 밭공이래 무참히 짓밟혔던 이 땅에 태양의 새싹을 안아주시었다.

수령이 명도하는 정의로운 위업에 한몸바칠 결심을 하고 나선 혁명가는 눈속에 파묻혀도 승고한 인민들을 지니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과 그의 높은 뜻을 헌신로 꽃피우시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는 정제하는 원수님의

리치 말라는 항일선열들의 당부를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신념의 기둥으로 세워주시는 정제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지가 조선의 국수 소나무에 빛날것이다.

조선의 국조인 풍산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순종을 찾아주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빛내어주시는 나라의 귀중한 재보이다.

풍산개가 일본놈들에 의하여 많이 없어지고 말았지만 그것을 누구보다도 가슴에 안고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신은 신을하는 제의 가슴속에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조선의 정신도 살아있다는 민족적정서의 불꽃을 지켜주시고 일제의 밭공이래 무참히 짓밟혔던 이 땅에 태양의 새싹을 안아주시었다.

생김새와 기질이 뛰어난 풍산개를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널리 사랑하였다.

풍산개는 성질이 온순하고 맹렬하며 주인을 잘 따르지만 주인과 지기를 헤치려하면 철대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물어대지는 강한 후지와 용맹을 지니고 있다. 풍산개 사냥군도 없었어 숨어지지만 호랑이를 물어대었다는 이야기도 불이 난출도 모르고 잠든 주인을 구원하고 죽었다는 옛이야기는 오늘날도 진실처럼 전해지고있다.

당의 은정속에 풍산개가 조선의 국조로 제정됨으로써 우리의 풍산개는 나라의 자랑으로, 세계의 명조로 더욱더 그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평양소주가 나라의 국조로 된다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야 한다는 승고한 인민들을 지니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과 그의 높은 뜻을 헌신로 꽃피우시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는 정제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 깃들여있다.

세상에는 역사와 전통이 오랜 이름난 국수, 명주들이 많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 오렌지색 불유한 사람만들 마시었다.

하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이 좋아하고 사람들 누구나 다 마시는 평양소주가 국수로 되었다.

인민들이 좋아하고 나라를 대표할수 있는 명주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동강시료공정건설을 맡기신 위대한 장군님, 주체98 (2009)년 9월 새로 건설된 대동강시료공정건설을 찾아주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신은 신을하는 제의 가슴속에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조선의 정신도 살아있다는 민족적정서의 불꽃을 지켜주시고 일제의 밭공이래 무참히 짓밟혔던 이 땅에 태양의 새싹을 안아주시었다.

참으로 우리 나라의 국가상징물인 국호와 국장, 국기는 물론 국화과 국수 그리고 국조와 국조, 국조 그 어느 하나도 인민과 결부되어있지 않는것이 없듯이 우리의 국호에도 인민을 위한 절제의 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여있다.

실세위인님께서 세워주시고 빛내어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영원한 삶의 미지이다.

도서 《조선의 국가상징》은 태양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누리에 빛내이며 천만민족의 가슴마다 애국심을 더해주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성룡

제11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개막



제11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가 개막되었다. 전람회장에는 우리 나라와 중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대표단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대표단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여러 나라의 대표단 방문



여러 나라의 대표단 방문

외국 손님들 청년운동사적관, 자연박물관 참관



외국 손님들 청년운동사적관, 자연박물관 참관

로씨야에 가는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 출발



로씨야에 가는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 출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 행사에 참가하였던 외국 손님들이 떠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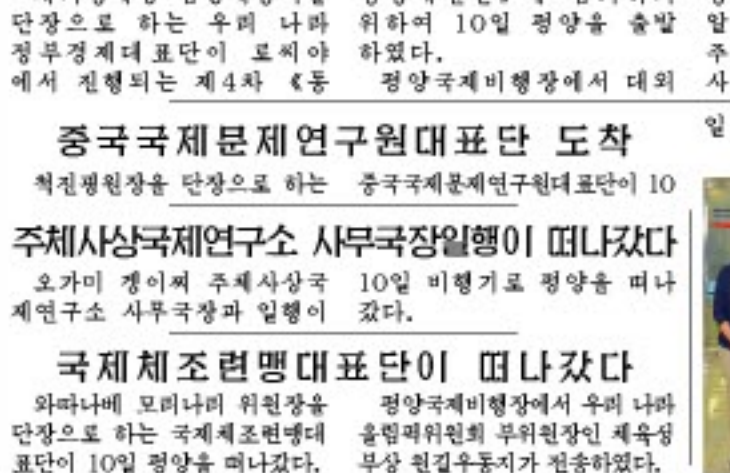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 행사에 참가하였던 외국 손님들이 떠나갔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대표단 도착



중국국제문제연구원대표단 도착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이 떠나갔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이 떠나갔다

국제체육기자은행대표단이 떠나갔다



국제체육기자은행대표단이 떠나갔다